

연구원 소식

전남북 독서리더 교육 2차 강좌(11월 5일)

지난 7월 16일에 이어 광주광역시에 자리한 (사)인문지행과 우리 연구원이 11월 5일 "음악이 있는 인문강좌"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22년 11월 5일(토) 16시 ~ 18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제목: <일본 영화와 한국·한국인>

발표: 이정욱(전주대)

토론: 황태묵(군산대)

연주: 박종관 외(플룻 & 첼로)

대상: 회원 및 시민

장소 관계상 스물 다섯분 내외만 모실 수 있으니 참석하실 분들의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이근안 자수하다 - 1999년 10월 29일

일제강점기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고문은 해방 후 헌법과 형법을 통해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고문은 상시적이고 만성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박하사탕”, “변호인”, “남영동 1985”에서는 한국 공안당국의 음습한 과거가 등장한다. 민주화 운동과 연루된 당사자들을 고문하는 고문기술자들의 모습은 일반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소시민이지만 갇힌 이들에게는 생사여탈권을 쥐 조물주와 진배없었다.

그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하였고 1970년 7월 대한민국 경찰 순경에 임명되었다. 1972년 8월 경찰청 치안국 대공분실 형사로 발령받으면서 이후 1987년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등에서 대공, 강력계, 살인사건, 방첩 전문 수사관 등을 맡았다.

‘인간 백정’, ‘지옥에서 온 장의사’ 등으로 불리던 고문 기술자였다. 잡혀온 사람들 앞에서 한 손으로 사과를 으깨 보이며 “내가 손대면 입을 열게 돼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전기고문, 물고문, 관절 뽑기, 날개 꺾기, 집단 구타, 볼펜심 신문, 통닭구이 등 각종 고문에 통달한 후 종종 다른 기관에까지 ‘고문 출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남민전의 책임자였던 이재문에게 내 고문을 받고 5미터를 걸어가면 석방시켜주겠다는 말을 했던 그에게 언론계의 송건호를 비롯한 술한 이들이 부처님 손바닥의 중생처럼 사그라져갔고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숨을 놓아야했다.

그는 경찰 재직기간 동안 청룡봉사상 등 모두 16차례의 표창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간첩 검거 유공’이 4회나 포함돼 있다. 그가 검거했던 간첩들은 재심을 통해 16년간 옥살이를 한 함주명씨를 비롯 연달아 무죄선고를 받았다.

1980년대 '학림사건'으로 그에게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한 기고문에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썬데이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며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한 뒤 수배중인 동료들의 소재지를 땀"고 고백했다.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고 김근태 의원은 생전에 "그가 고문을 하면서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 그때 가서 복수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의 악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는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1988년이였다. 그가 자수한 이후 상관이었던 박처원 치안감이 거액의 도피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처원은 친일경찰 노덕술의 계보를 이어온 경찰공무원이었고 고문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근안을 특별히 총애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자신이 활개 치던 세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움을 깨달아서였을까. 10년 11개월을 숨어 지내다 1999년 10월 29일 돌연 자수하였다.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그리고 그는 2008년 10월 목사가 된다. 자칭 목사가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진짜 목사가 된 것이다.

교도소와 교회를 다니며 신앙 간증을 하던 그는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애국자였다."

2012년 그에게 목사 안수를 해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2012년 1월 14일 이근안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16년동안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리고 10년 11개월을 숨어다니다 더 이상 세상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통감하고 자수한 그는 지금까지 고개를 한 번도 숙이지 않고 삶의 정당성을 외치다 세간의 눈에서 사라져 갔다. 그에게 고문을 받고 조작 간첩이 되어 인생을 빼앗긴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그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궤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